

부탄이 만든 행복의 철학, G N H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백운성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히말라야 산자락의 작은 나라, 부탄.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행복순위에서 매년 상위에 올라있다. 부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

호기심 천국! 부탄



〈지도로 본 부탄의 위치〉

부탄은 시간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은 특이한 나라이다. 이 나라는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의 중심부에 묻혀, 스스로 몇 세기동안 다른 세계와 동떨어져 고립된 상태로 지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신중한 개방 이후 여행자들은 이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 경이로운 풍경과 건축물들,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들, 그리고 독특하고 순수한 문화는 이 나라의 매력들이다.

풍부한 자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부탄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발전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피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옛 문화와 자연 자원, 그리고 그들의 불교식 생활양식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부탄은 과거와 미래에 양 발을 걸친 채 침착하게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부탄은 우리나라의 약 1/5 면적으로 인구는 약 70만 명 정도의 조그만 나라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고도 2,000미터 이상의 산악지대로 평야가 거의 없어 지도를 펼쳐보면 주변 국가와 다른 특이한 형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인도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티베트 문화권에 속하고 티베트와 같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써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도는 부탄과의 국경선에 여행 금지선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외국인 입국자가 가장 적은 비경(秘境)으로 존재한다.

부탄은 지정학적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식민화된 적이 없다. 인도의 영국 식민시대에 현재 군주제가 만들어졌고, 1910년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외교권과 국방권이 영국으로 편입되었다. 1949년 인도가 독립하면서 부탄과 인도는 10가지 조항을 포함하는 영구 조약을 맺었다.

부탄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이며 경제 규모도 협소하다. 주요 경제는 농업과 임업으로 국민의 60% 가량이 여기에 종사한다. 최근 들어 수력 개발 잠재성과 관광산업 발전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교육과 사회경제적 발전 계획이 미비하여 다방면의 경제발전은 힘든 상황이다. 또한 경제개발도 환경과 전통문화 수호를 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지리적 고립과 정부의 고립정책에 따라 부탄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고유문화를 지켜올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있는 종교는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를 규정하고, 자연과의 친화로 자연을 닮은 그들의 정신은 순수 그 자체를 의미한다.

부탄으로 가는 길...

부탄으로 들어오는 장소는 두 곳으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부탄의 유일한 공항인 파로공항을 통해 비행기로 도착하며 몇몇은 인도와의 남부 접경인 푸엔트솔링(Phuentsholing)을 통해 육로로 도착한다. 출입국은 어떤 경우라도 모두 부탄의 국영 항공사인 드룩에어(Druk Air)로만 가능하다. 드룩에어는 다른 항공사와의 제휴 관계가 없으며 부탄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항공사이므로 여행자들은 드룩에어가 취항하는 곳에서 스스로 비행기 티켓을 사야만 한다. 현재 드룩에어는 네팔, 태국, 인도, 카타르에서만 출항하고 있으며 향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취항할 계획이다.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파로로 출발하는 항공편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극적인 장관을 볼 수 있다.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여행세는 호텔에서 묵든, 트레킹을 떠나든 약 미화 200불이다. 이 금액은 모든 숙소와 음식, 부탄 내의 육로 교통수단, 가이드, 포터, 짐 나르는 동물,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위치, 계절, 그리고 요구하거나 제공된 그 어떠한 숙소 형태와도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부탄은 국가정책으로 관광객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방문할 수 있는



〈부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항공기 드룩어와 파로공항〉

곳이 아니다. 최근 부탄의 관광객은 연간 약 30,00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약 65,000명 수준으로, 2013년엔 약 100,000명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호텔과 가이드 등의 수와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탄의 문화와 전통,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될 것이다.

부탄이 말하는 행복이란...

어떻게 해서 부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 원인은 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발전 계획에 있다.

오늘날 부탄을 있게 한 선각자는 3대 국왕이었던 도르지 왕추크 국왕이다. 왕추크 왕은 당시엔 개념조차 희미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했다. 즉, 자연을 파괴하고 소모시켜서 국가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호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왕추크 왕은 국민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개념이 아닌,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개념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나라는 생산이 목적이 아닌 행복이 목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문화를 개방하고 국가의 ‘현대화’에 전력을 쏟으면서 UN 회원국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부탄의 4대 국왕인 ‘지그메 싱예 왕추크’ 국왕에 들어 부탄의 발전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많은 업적을 이룬 왕추크 국왕은 2006년 말,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 부탄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였다. 국왕이 혁명이나 전쟁, 외압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물러난 것은 인류 역사상 이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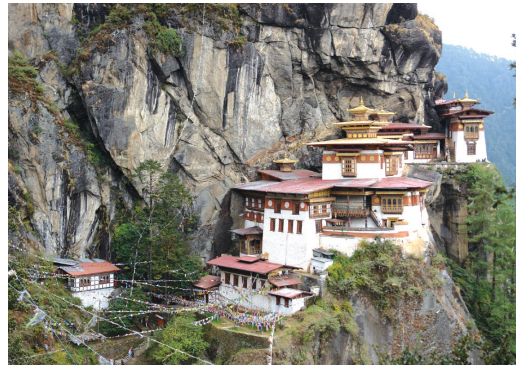
나라의 힘이나 진보는 ‘생산’이 아니고 ‘행복’으로 측정하자고 하는 이 「GNH(Gross National

Happiness)」는 1976년 제5회 비동맹 제국 회의에서 부탄의 원츄크 국왕(당시 21세)의 「GNH는 GNP보다 보다 중요하다」라는 발언에서 발단되었다고 전해진다. 물질적인 풍부함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풍부함도 동시에 진보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츄크 국왕은 1960년대~70년대 초, 선진국의 경험이나 모델을 연구한 결과, 「경제발전은 남북 대립이나 빈곤 문제, 환경 파괴, 문화의 상실로 연결되어, 반드시 행복하게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GNP 중대 정책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의 증대를 요구하는 GNH를 강조했다. 「개발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중심으로서 행해져야 한다.」 GNH란 부탄의 개발 철학이며,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다.

GNH(Gross National Happiness)란 무엇인가?

1972년 당시의 통치자였던 지그메 싱게 왕추크(Jigme Singye Wangchuck) 전 국왕은 국민들이 물질적 풍요와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경제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후생지표를 국민총행복이라고 명명하며 국민총생산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을 추구할 것을 역설하였다.



〈부탄불교 최대의 성지 : 탁상사원〉

경제발전은 불교적 전통 문화에 기초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하는 GDP를 대체할 수 있는 GNH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부탄정부는 GNH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2008년 11월 제5대왕 즉위 이후 GNH를 국가 정책의 기본틀로 채택하였다. 현재 GNH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GNH란 부탄의 개발 철학이며,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일률의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지표로서 수치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1999년에 부탄 연구 센터가 설립되어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GNH라고 하는 개념의 아래, 부탄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시켜 되었다.

해외리포트

1축 -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촉진

(the promotion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2축 -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진흥(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values)

3축 - 자연환경의 보존(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4축 - 바람직한 거버넌스체제의 확립(the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국민총행복 지수는 부탄인의 총체적인 행복과 후생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되는 9개의 규범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몇 가지 지표에 의하여 평가된다.

①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로서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행복이 부탄왕국이 추구하는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명상과 기도 등과 같은 종교적, 영적 활동 등이 반영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마다 종교활동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리적 웰빙지표는 일반적 심리 지표(general psychological indicators), 정서적 균형 지표(emotional balance indicators), 정신적인 지표(spirituality indicators)로 구성되며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질투, 좌절,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 관대함, 동정심, 평정심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 명상과 기도와 같은 영적 활동 등이 척도로 측정되어 조사 결과를 수량화한다.

② 시간의 활용(Time Use)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영역으로 노동 시간 이외의 시간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나타낸다. 시간의 스케줄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총근로시간지표, 수면시간지표로 구성된다. 수면과 자기계발, 공동체 활동, 교육과 학습, 종교와 사회 및 문화적인 활동, 운동과 여가활동, 그리고 여행 등에 활용한 시간뿐만 아니라 살림을 하고, 애들을 키우며,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가사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③ 공동체 활성화(Community Vitality)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 사이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활력 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지표, 사회화지표, 친족친밀도지표로 구성되며 가족, 안전, 상호의존, 신뢰, 사회적인 봉사, 공동체 참여도, 그리고 친척과의 친밀도 등을 측정한다.

④ 문화·전통(Culture)

문화적 전통의 유지는 부탄의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은 부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창의력 배양에 크게 공헌한다. 이를 위하여 복장이나 건축물을 비롯, 많은 부분에 부탄의 문화와 전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적 전통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언사용지표, 기초인식지표, 가치전달지표, 장인기술지표, 전통스포츠지표, 지역사회 축제지표로 구성하며 방언, 전통, 운동, 공동체 축제, 예술적 기능, 가치관의 전파, 기본적인 통찰력 등을 측정한다.

⑤ 건강(Health)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타국과 비슷한 사례로 건강상태지표, 건강지식지표, 보건장벽지표로 구성되며 질병의 발생, 질병의 전파에 대한 지식, 건강증진 시설 등을 측정한다.

⑥ 교육(Education)

부탄을 이끌어 가는 힘은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교육달성도지표, 지역언어지표, 민속 및 역사적 문헌해독지표로 구성되고 자기학습 및 탐구를 조장할 수 있는 조직, 문맹률 등을 측정한다.

⑦ 환경(Ecology)

환경은 부탄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영역이며 관광객 수의 제한 및 기타 여러 정책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생태학적 다양성과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한 생태환경악화지표, 생태환경지식지표, 조림지표로 구성된다.

⑧ 생활수준(Living Standard)

의식주 등의 기초생활수준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경제보다는 행복의 기반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의식주 등의 기초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소득지표, 주택지표, 식량안보지표, 곤궁지표로 구성된다.

⑨ 거버넌스(Governance)

정부의 부패를 막고 평등을 추구하는 정도를 다루고 있으며 행정의 질이나 효율성, 정직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성과지표, 제도에 대한 신뢰지표로 구성된다.

GNH의 72개 세부지표는 2년마다 측정하고 있다. 과거 몇몇 주를 대상으로 약 800명 정도 조사했지만 2011년은 전체 주의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올해의 조사결과는 12월 경에 발표될 예정이며 6개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부탄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곳은?

부탄의 행복은 종교적인 삶과 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함께 녹아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기반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맑은 정신이 깔려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다른 국가와는 특이하게 부탄에는 GNHC(국민행복위원회,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와 CBS(부탄연구센터, Centre for Bhutan Studies)란 두 기관에서 부탄의 행복을 가꾸고 있다.



〈국민행복위원회 방문〉



〈타시초종 : 정부종합청사이자 사원〉

GNHC는 부탄정부 정책 전반에 걸친 기획과 심의기능을 담당했던 '기획위원회'가 2008년 1월 24일 '국민행복지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임무뿐만 아니라 총괄위원회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GNHC의 주요 임무는 국가 정책에 GNH를 반영하고, 이러한 정책이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GNHC는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의장에 내각장관, 회원으로서 모든 부처의 장관과 국가환경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간사에 GNHC 서기관으로 구성되며 계획, 정책결정, 수행과정에 있어 GNH를 구현시키는 것에 커다란 목적이 있다.

CBS는 사회과학과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부탄 유일의 연구기관으로 1995년 설립 후,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통하여 GNH의 이해와 적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NH의 연구 및 적용과 부탄의 경제, 역사, 종교, 사회, 정치, 문화 및 관련 테마를 연구하며 출판과 웹상의 공유를 통해 부탄의 학문을 장려하고, 각종 국내외 회의와 세미나 및 강연 등을 개최한다.

부탄은 국민 1인당 GDP가 낮은 저소득 국가이다. 하지만, 부탄에서는 「당신은 행복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각 나라별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부탄의 행복에 대해 절대적으로 부러워만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나 물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반대로 해치고 있을 것은 없는가? 부탄의 GNH가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삶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탄연구센터 전경 및 회의모습〉